



비료와 식량

2023년
9월호

1. 회원사 동정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4. 농경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6. 무기질비료 상식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1 회원사 동정

□ 남해화학(주)

○ 농자재 3개사 통합...‘농협에코아그로’ 출범



농협은 농협아그로, 농협흙사랑, 상림 등 기존 농자재 3개 회사를 통합, ‘농협에코아그로’로 공식 출범을 알리며 고품질 친환경농자재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농협에코아그로는 지난달 29일 대구 달성군 본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고품질 친환경농자재를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과 농자재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 농자재 3개 회사를 통합함으로써 규모화를 이루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자재 공급의 효율을 높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편익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자재 시장 선도 기업

농협에코아그로가 밝힌 비전은 ‘친환경농자재 시장을 선도하며 농업적·기업적 가치를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다. 농가인구 감소, 비료 등 기존 농협흙사랑과 상림의 주요 품목의 시장정체, 친환경농자재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며 “농협의 농자재 3개 회사가 통합한 농협에코아그로가 낮은 가격에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실익을 제고하는 협동과 협업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모화 · 효율화 · 전문성

기존 농자재 3개 회사가 통합된 농협에코아그로는 영업망 확대, 물류 효율화 등 규모화를 통한 통합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농협에코아그로의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기존 지역 기반 영업체계를 전국 단위로 통합해 영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물류 개선을 추진한다.

규모화와 효율화 외에 전문성 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남해화학, 농협케미칼, 농우바이오 등 농협의 계열사는 물론 농촌진흥청, 외부 연구기관 등과 기술제휴를 체결하는 등 연계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친환경농자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해나간다는 목표다.

※ 농수축산신문(2023.8.29.)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 (주)경농-농진청, 韓 디지털 농업 경쟁력 향상 위해 ‘맞손’

- 농업 연구와 기술·정보 공유 등 협력 “미래농업 발전 가속화로 농업인을 잘 살게”



▲ (주)경농과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연구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이승연(왼쪽 다섯 번째) 경농 사장과 성제훈(왼쪽 여섯 번째)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주)경농이 우리나라 디지털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손을 잡았다.

경농은 11일 전북 김제의 경농 미래농업센터에서 농촌진흥청과 지능화·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연구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승연 경농 사장과 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및 정밀농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규 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농과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농촌에 관한 연구를 함께하고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을 구현해 지역농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 지능화 및 데이터 기반의 혁신 체계 구축 ▲ 디지털 농업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스마트팜 연구개발 및 보급 ▲ 미래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 융합 연구 협력을 추진한다.

경농은 국내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융복합 농업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08년 관수사업팀을 시작으로 이후 스마트팜 사업 부문으로 개편한 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경농의 스마트팜 사업 부문은 효율적인 물관리 및 영양관리, 무인방제 등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유력기업과의 기술 제휴와 복합환경제어기, 양액공급시스템 등의 자체 개발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한 지능형 미래농업기술을 개발해 더 편리하고 부가가치 높은 신농업을 개척하고자 이번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은 “농진청에 유용한 데이터와 결과물이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현업에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농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실무진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다양한 데이터가 실무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과 수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연 경농 사장은 “경농은 더 편리한 기술과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스마트한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실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농가자재신문(2023.9.12.)기사내용 인용

□ (주)팜한농

○ “카톡 친구에게 추석 선물하세요”

팜한농(대표 김무용)이 추석을 앞두고 9월 4일부터 한 달간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위한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팜한농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유용한 영농 정보와 1:1 영농상담 등 영농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팜한농’을 검색해 팜한농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고, 이벤트 응모 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카카오톡 친구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팜한농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고 추천인 정보를 입력하면 더욱더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팜한농은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500명을 추첨해 CU편의점 상품권을 선물한다. 또한 친구를 많이 초대한 고객에게는 LG전자 로봇청소기(1명)를 비롯해 정관장 홍삼정 선물세트(5명), LG 생활건강 선물세트(24명)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10월 16일 팜한농 카카오톡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팜한농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팜한농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팜한농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더욱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업신문(2023.9.12.)기사내용 인용

□ (주)풍농

○ 고품질 마늘, 양파재배를 위한 필수자재, 엔피코 기능성·완효성비료

- " 명품유비룡 ", " 비효증진제, 완효성, 유기물함유 작물생육향상 기능성비료 "
- " 룡린모든작물 ", " 완효성, 규산, 석회(칼슘), 유허함유 추비 생략가능 완효성비료 "



기능성-효과탁월



완효성-모든작물

주식회사 풍농은 마늘, 양파 등 월동작물의 안정적 생육 및 다수확 재배에 적합한 기능성, 완효성비료 추천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완효성비료 룡린모든작물(12-5-5,고토2,붕소0.2,규산6,석회15,유허5), 기능성비료 명품유비룡(18-9-8,고토1,붕소0.1,유기물10,비효증진제함유)는 관행비료보다 양분공급이 완효적, 지효적이며 양분공급 기능강화 뿐만 아니라 양분흡수효율이 뛰어나 시비절감효과 20% 이상의 고기능성 제품입니다.

명품유비료는 기능성 비료효과증진제, 지력개선 및 유지에 좋은 식물성 유기질 뿐만 아니라 완효성 및 필수양분을 고루 함유하였습니다.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의 양분흡수효율 향상으로 뿌리활착이 빨라 초기생육이 왕성합니다. 또한 완효성, 유기물을 함유하여 비료양분이 완효적, 지효적으로 공급되어 관행비료 대비 양분의 유실없이 생육이 안정적입니다.

전국 1,400여 농가 실증시험결과 농업인 95% 비료효과 만족, 공인기관 시험결과 마늘, 양파 수량 6~8% 증수, 구 중 및 크기 5~8%증대로 비료효과가 입증되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기능성 비료입니다.

롱런모든작물비료는 마늘, 양파 등 월동작물 재배에 알맞은 필수 삼요소와 고토, 붕소, 규산, 석회, 유황 함유 뿐만아니라 완효성비료로 3~4개월 장기간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밑거름 시비 한번으로 양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월동이후 추비를 다량 필요로 하는 마늘, 양파 재배특성상 완효성 양분이지속적 공급으로 중, 후기 마늘, 양파 생육을 왕성히하여 구비대 및 상품성 향상 효과가탁월합니다. 또한 규산, 석회를 다량 함유하여 지력증진 및 토양환경 개선효과와 유황함유로 마늘, 양파의 황함유 아미노산 증가, 저장성 등 품질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비료입니다. 롱런모든작물은 마늘·양파에 170~180kg/10a(추비생략), 명품유비료는 50kg/10a으로 시비후 토양과 고루 섞이도록 전층시비 하시면 사용효율이 더욱 뛰어납니다.

※ 풍농 자료 인용

2 협회 주요 활동

- 농협의 3분기 무기질비료 공급가격 인하 요구 대응
- 농식품부 요구 자료 제출
 - 국정감사 사전 요구자료 작성 및 제출(신정훈, 윤재갑 의원실)
- 비료 수급대책 회의 참석 및 요구자료 제출
 - 중국 요소 수출제한 관련 요소 수급동향 및 주요 원료 수급현황 점검 회의 (9.11., 농식품부)
 - 주요 3개 원료 수급 및 재고 현황 파악 제출(9.14., 9.21.)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 취합 및 제출(9.13.)
- 베트남 중앙비료 협회장 협회 방문 면담(8.30., 협회 회의실)
 - Dr. PHUNG HA, 전문가 교육, 연수, 현장 방문 분야 협력 요청



- 2023년 한국축산환경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관(9.7.~8., 대구 엑스코)
- 2023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관(9.14.~15., 양재동 aT 센터)
- 농업전문지 기자 방문 응대(9.4., 9.14., 협회 회의실)
 - 무기질비료 산업 일반 현황 설명 등

3 무기질비료 관련 언론 보도 동향

- (농식품부) 중국의 요소수출 동향과 관련, 비료 수입선 다변화, 충분한 재고확보 등 국내 영향 제한적

〈보도 주요내용〉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9월 7일(목) “China Asks Fertilizer Producers to Suspend Urea Shipments”(KBS, MBC, 뉴스1 등 후속보도)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 지시, 일부 중국 비료업체는 이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 계약 중단,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지난 2021년 폭등하였던 국제요소 가격은 이후 2년간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우리나라는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비중을 17% 수준으로 낮추

어, 유사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국가로부터 수입비중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동산): ('21.8.) 451\$/톤 → ('21.12.) 933 → ('23.8.) 396 → (23.9.1주차) 360

* (중국산): ('21.8.) 439\$/톤 → ('21.12.) 960 → ('23.8.) 378 → (23.9.1주차) 375

** 국가별 수입 비중(23.7월): 카타르 41.1%, 중국 17.4, 베트남 13.4, 사우디 10.0 등

중국산 수입실적(비중): ('21) 28만톤(65.4%) → ('22) 8 (18.3) → ('23.7월) 4 (17.4)

국내 비료업계는 비료용 요소(원자재)의 연간 예상 수요량 39만톤을 기준으로 현재 30만톤(약 77%)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료 완제품 재고는 26만톤으로 현재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1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가동하여 중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요소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 농식품부(2023.9.8.) 설명자료

□ 정부 “요소 중국 의존도 17.4%…비료용 연간 수요량의 77% 확보”

○ 농식품부, “2021년 폭등 이후 수입선 다변화”

○ 환경부, “국내 차량용 요소수 60일분 확보”

○ 기재부, “주중대사관 파악 결과 중국 정부, 공식적 수출 통제 조치 안해”

국내 수입 요소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7월 기준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비료업계는 연간 예상 수요량의 77%를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량 또한 60일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비중을 17% 수준으로 낮춰 유사시 대체 공급망 확보에 대비해왔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이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을 중단했고 실제 일부 업체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동향을 전하면서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 요소수 가격이 2021년 폭등 이후 2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1년 폭등했던 국제 요소 가격은 이후 2년간 하향 안정화 추세”라면서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 수입비중이 51%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내 비료업계 사정도 전했다. 비료용 요소는 연간 예상 수요량이 39만 t인데 현재 77%(30만 t)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판매 추이가 계속된다면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요소 수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도 주력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중 대사관 등 외교 라인을 통해 확인해 결과,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농민신문(2023.9.9.)기사내용 인용

□ 중국 요소 수출 제한...비료업계 예의주시

○ 2년 전 두 배 이상 가격 폭등, 정부는 “국내 영향 적을 것”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여파로 요소 비료 공급이 차질을 빚었던 2년 전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 지시, 일부 중국 비료업체는 이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 계약 중단,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비료업계가 긴장했다.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비료가격이 폭등했던 2년 전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8월 톤당 439달러였던 중국산 요소 가격은 2021년 12월 960달러까지 두 배 이상 폭등했다. 당시 451달러에 거래됐던 중동산 요소 가격도 933달러까지 상승했다.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 여파다. 현재 요소 가격은 중국산 375달러(9월 1주차), 중동산 360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현실화 되면 또다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비료업체들을 중심으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이뤄졌던 2년 전에도 발주 후 출고까지 걸린 시간이 최대 3개월까지 길어지면서 요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2년 전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가장 심할 땐 물건을 받는 기간이 3개월까지 길어졌다. 이후에 그 기간이 한 달 반까지 줄었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B업체 관계자는 “중동산 요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을 순 있지만 수송비와 운송시간 등을 감안하면 가격이 싸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일부 업체들이 거리상 가까운 중국산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요소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도 “2년 전 사태 이후 수입처를 다각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비료업체들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은 2021년 65%에 달했지만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요소 비중이 51%를 차지하고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을 17%(2023년 7월 기준) 수준으로 낮췄다.

농식품부는 또 비료용 요소(원자재)의 연간 예상 수요량 39만톤 중 약 77%인 30만톤을, 비료 완제품 재고도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량(26만톤)을 확보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이뤄져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가동해 중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내 요소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비료 수급이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2023.9.12.)기사내용 인용

□ 중국, 요소 수출 금지...국내 비료업계 '촉각'

-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보로 올 연말까지 '이상무'
- 중국 요소 수출 중단 장기화될 경우 타격 불가피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 지시라는 보도가 나오자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 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2001년 요소 사태 때 비료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만큼 국내 비료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중국 수출 중단이 지속될 경우 비료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료업계 관계자는 “최근 요소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비료업계에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국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타 국가에서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말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65% 달하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을 17%로 낮춰 유사시 대체 공급망 확보를 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부터 요소 수입 비중은 51%로 절반을 상회한다.

올해 7월 기준 국가별 요소 수입 비중은 카타르가 41.1%로 가장 높고 중국 17.4%, 베트남 13.4%, 사우디 10.0% 등이다. 또한 국내 비료업계는 비료용 요소 연간 예상 수요량 39만 톤을 기준으로 현재 약 30만톤인 77%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는 "현재 비료업계의 성수기가 아닌 데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중국발 요소사태 이후 비료업계에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온 결과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요소 수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비료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재 비료 완제품 재고는 26만톤으로 현재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1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가동해 중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요소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업신문(2023.9.11.)기사내용 인용

□ (농식품부) 첫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 운영!

○ 수출 확대 및 수출관계자 격려를 위해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전용 수출탑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하여 12월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크게 수출실적 우수기업에게 주는 수출탑과 도약탑, 시장 개척탑, 스마트팜탑 등 테마탑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2023.9.3.) 보도자료

□ 비료 최대 살포량, 종류별 차등화될까

○ 관련법 개정안 발의 ... 업계 '환영', 현재 무기질비료·퇴비·액비 동일

○ 질소 함유량 차이 커 구분 필요, 농가 가축분뇨 처리 수월 기대

비료 종류에 따라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축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무기질비료 대비 가축분 퇴비·액비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화학비료, 가축분 퇴비 등 종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공급·사용량을 1000m²(302.5평)당 3750kg 또는 3750ℓ로 제한한다. 액비의 경우 시비처방서를 기준으로 한 시비량이 최대 사용량인데, 평균적으로 1000m²당 2000kg까지 살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제19조2에는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은 비료의 종류별로 그 비료가 함유한 성분의 함유량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이처럼 법률상 비료 종류별 살포량 차등화 근거를 마련해놓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비료에 포함된 질소는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토양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환경오염과 농업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비료는 종류에 따라 질소 함유량이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비료 질소 함유량은 45%를 넘지만, 퇴비와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의 질소 함유량은 각각 1~2%, 0.1~0.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비료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비료의 최대 공급량을 비료 종류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 농민신문(2023.9.6.)기사내용 인용

4 농정 이슈

□ (농식품부) 2024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3천억원 편성

- 농식품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수준인 5.6%
- 농업직불금 3.1조 원 등 국정과제 이행 및 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

※ 농식품부(2023.8.29.) 보도자료

□ (농식품부) 2024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2024년 수출지원 예산은 6,313억원으로 2023년 대비 188억원 증가(농식품은 6,176억원으로 120억원 증가, 전후방산업은 137억원으로 68억원 증가)
-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주계약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등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 농식품부(2023.9.5.) 보도자료

□ (농식품부)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 효율화, 농가 지원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는 요건 충족하는 모든 농가에 충분히 지원 가능

〈보도 주요 내용〉

농민신문의 9월 11일(월) “증가율에 미소지었지만...기대 못 미친 증액 뼈아픈 감액” 제목의 기사에서 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없이 예산 삭감, ②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예산 삭감, ③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중단, ④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예산 280억원 삭감, ⑤ 가축사체 처리지원사업 제도개선 노력(중장비 지원) 없이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최근 2년간 집행률(1.8%, '21년 7억원 집행, '22년 미집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54억원)으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차질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여야 정 합의 등을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상향하였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농업인 연금 보험료는 연금 보험 가입자 수 감소(317천명 → 282천명)를 고려하여 편성하였고, 올해와 동일한 지원기준과 지원율로 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③과 관련하여,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시적 지원 사업이었으며,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024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 주요 원자재 가격 : (요소) ('21.8) 451\$/톤 → ('21.12.) 933 → ('23.8) 396('21.8.比 12.2%↓)
 (인산이암모늄) ('21.8) 622\$/톤 → ('21.12.) 905 → ('23.8) 534 ('21.8.比 14.1%↓)
 (염화칼륨) ('21.8) 482\$/톤 → ('21.12.) 625 → ('23.8) 285 ('21.8.比 40.9%↓)

* 비료가격 : ('22.초) 1,195천원/톤 → ('23.초) 973 → ('23.8) 878

④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격이 유사한 농산물직거래활성화자금과 통합(친환경농산물 직거래 228억원 지원) 편성하였으며, 280억원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 농식품부(2023.9.12.) 설명자료

□ [2024 농업예산안] 증가율에 미소지었지만...기대 못 미친 ‘증액’ 뼈아픈 ‘감액’

- 직불금 3000억원 증가 그쳐, ‘5조원’ 목표 달성 갈길 멀어

- FTA 피해보전직불 70% ↓, 발동요건 완화 등 우선돼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농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5.6% 많은 18조3000억원이다. 그동안 뒷걸음질 치거나 짙끔 오르는 데 그쳤던 농업 예산안이 국가 전체 예산안 증가율(2.8%)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농업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증액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감액된 사업도 많아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직불제 3조원 편성에도 갈 길 멀어 = 정부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 예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농업직불금 예산이 올해 2조840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늘어난 3조1042억원으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를 약속한 점에 비춰보면 증액 규모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내년이면 현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맞는 데다 총선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이번이 농업직불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적기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증액 규모가 3000억원에 그치면서 앞으로 3년간 매해 6000억원씩 증액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 농가 피부에 와닿는 사업도 칼질 = 직불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예산은 올해 180억원에서 70% 줄어든 54억원만 편성됐다.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감액으로 풀이된다. 이 사업의 집행 부진은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으로, 농업계에선 발동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 없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농업계에선 유일한 FTA 피해 보전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 일몰을 맞는 2025년 이후 사라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귀농·귀촌 열기가 식어가는 시점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예산(135억2000만원 감액)과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예산(12억7800만원)이 줄어든 점도 눈에 띈다.

전농은 최근 성명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제와 연금보험료 지원 외에도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을 농민과 상의 없이 중단하며 1000억원 삭감했고, 농산물 유통 개선 예산 895억원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예산도 280억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 농민신문(2023.9.13.)기사내용 인용

□ 2024 농식품부 예산안, 농산물 수입 ‘확대’ 농촌복지 ‘축소’

- 기후재난 시대, 농가경영 위기 대책 예산 부족 심각
- 반려동물·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 집중 육성

올 한 해 ‘기후재난’과 ‘생산비 폭등’에 농산물 가격 폭락까지 겹쳐 망연자실했던 농민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안에 격노하고 있다. 농민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한 채 농산물 수입예산이 확대됐고, 반려동물·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농식품부가 밝히고 있어서다.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원이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보

다 높지만, 지난 10년간(2015~2024년) 국가 전체 예산은 연평균 6.4% 증가한 데 비해 농식품부는 연평균 증가율 3.8%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쌀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를 올해 1조4,077억2,800만 원에서 내년 1조7,124억2,100만 원으로 21.6% 증액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올해보다 5만톤 더 늘리고(45만톤) 80kg 매입단가도 18만7,509원에서 내년 20만284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수입 양곡대 역시 올해 5,550억9,600만 원보다 611억6,600만 원(11%) 늘려 6,162억6,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농산물 수입예산 증액은 쌀뿐만 아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인 비축지원의 경우 국내산 농산물 수매예산은 올해 2,318억3,500만 원에서 내년 2,301억1,000만 원으로 일부 감액했다. 반면 수입농산물 매입비는 올해 4,105억700만 원에서 내년 4,514억2,000만 원으로 409억1,300만 원이나 증액한 상태다.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도 문제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이 534억원 삭감됐고, 요소 대란 이후 폭등한 무기질 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 예산 1,00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6일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노골적인 수입개방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농식품부 해체와 예산안 폐기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 한국농정(2023.9.10.)기사내용 인용

□ (전농) 2024 농업예산안 = 노골적 수입개방 선언!

- 농산물수입예산·수입양곡대 각각 409억·612억 ↑, FTA피해직불금은 126억 ↓
- 건강·연금보험료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등 농민지원예산도 대폭 삭감

9월 6일 농업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예산안을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지난번 예산안 편성 보도자료를 통해 자화자찬할 때만 하더라도 ‘속 빈 강정’인 줄로만 알았더니, 공개된 세부 내역까지 보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윤석열정권의 수입개방농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농산물수입 예산이 늘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 중 수입예산을 409억 원 증액한 것이다. 애그플레이션으로 농산물 도입가가 상승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양곡매입비를 증액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수입양곡대 역시 환율 상승과 도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612억 원이나 증액했다. 가격이 올랐으면 수입물량을 조절하면 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조차 없이 매년 들여오던 40만 8700톤의 물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FTA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대폭 삭감되었다. 올해 180억 원 규모였던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는 54억 원으로 무려 70%나 삭감되었다. 그나마 남은 예산도 축산분야로, 농작물 품목은 내년부터 전혀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대상품목이 생강 1개로 축소되고, 규모도 평당 100원 수준으로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었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수입예산을 늘리고 FTA 피해는

외면하면서 수입개방농정을 더욱 노골화하는 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전체적인 규모는 소폭 늘어났지만,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던 주요지원항목이 대폭 줄어들었다. 도시민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농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예산이 534억 원 삭감되었다. ‘요소 대란’ 이후 폭등한 무기질비료가격에 대한 지원도 농민과 협의 없이 사업을 종료하며 1천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외에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중 농산물 유통개선 예산이 895억 원 삭감되었고,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예산은 280억 원 전액 삭감되었다.

2024년 농업예산안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국회에서 조금 손 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을 투여해야 할 항목은 삭감하고, 투여하지 않아야 할 항목은 증액했다. 수입개방농정은 더욱 노골화되었고,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해놓고도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는 사실이 그저 분노스러울 따름이다.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농식품부는 해체하고, 휴지조각보다 못한 이번 예산안은 즉각 폐기하라.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2023. 9. 6.) 인용

□ (국회 농해수위) 2023 국정감사 일정 확정

- 다음달 10일 농식품부·농정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감사 시작
- 10월 24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로 농업분야 마무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가 국정감사 일정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대부분 국회에서 열리고, 현장감사는 부산 혹은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달 10일 열리는 농해수위 첫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대상이다. 12일에는 해양수산부·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이며 13일은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 16일은 경기도 포천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어 18일에는 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업기술진흥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축산물품질평가원·한식진흥원 등 8개 기관 대상 국감이 진행된다. 24일에는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25일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치러진다.

※ 한국농정(2023.9.22.)기사내용 인용

□ (한농연) 2023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발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 농정 요구사항 >

- 가.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농업경영비 지원 및 소득안전망 강화 필요
 -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책 마련
 -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안전 장치(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확충
- 나. 기후위기 속 농업 분야 자연재해 보상 현실화로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 다. 우량 농지 보전 및 체계적인 이용·관리를 골자로 제도 보완 추진
- 라. IPEF 협상 동향 및 국내 농업·국민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 상세 점검
- 마. 단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 TRQ 수입 정책 전면 개선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2023.9.18.)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 2024년도 예산안 1조 855억 원 편성

-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농업·농촌 활력화, 케이(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에 중점

< 주요 내용 >

- ◆ 2024년 농촌진흥청 예산안 규모는 2023년 예산(1조 2,547억 원)보다 1,692억 원 감소 (△13.5%)한 1조 855억 원 규모
 - * 2024년 예산안은 사업비 8,936억 원, 인건비 1,663억 원, 기본 경비 256억 원
- ◆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기조에 부응하여 국가의 본질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농업 신기술보급 및 케이(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에 집중 투자

※ 농촌진흥청(2023.9.1.)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 2022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 50개 작목 평균 소득률 48.2%(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
- 농자재비 인상으로 50작목 중 44개 작목 경영비 증가

농촌진흥청은 2022년도에 생산된 50개 농산물의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10아르) 소득은 식량작물 7%, 시설과수(포도) 6% 감소했으나, 화훼(시설 장미) 72%, 노지채소 26%, 시설채소 17%, 특용·약용 11%, 노지과수 3% 등으로 증가해 평균 소득률은 48.2%(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를 기록했다.

농촌진흥청은 9월 말에 '2022년 농산물소득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2023.9.18.) 보도자료

□ (통계청)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 '23년 벼 재배면적은 708,041ha로 전년 727,054ha보다 2.6% 감소
 - 정부 쌀 적정 생산정책 추진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
- '23년 고추 재배면적은 27,129ha로 전년 29,770ha보다 8.9% 감소
 - 생산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추 재배면적 감소

※ 통계청(2023.8.29.) 보도자료

□ (통계청) 2023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 '23년 봄감자 생산량은 35만 8,022톤으로 전년의 30만 3,211톤보다 5만 4,811톤(18.1%) 증가
 - 재배면적: ('22) 13,017ha → ('23) 14,699ha(12.9%)
 - 10a당 생산량: ('22) 2,329kg → ('23) 2,436kg(4.6%)
 - 총 생산량: ('22) 303,211톤 → ('23) 358,022톤(18.1%)

※ 통계청(2023.9.7.) 보도자료

□ (농정원)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9월 14일부터 4일간 열려

-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를 주제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마당 팝업스토어에서 미리 만날 수 있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23.9.4.) 보도자료

□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장에 13개국 '글로벌홍보관' 운영

- 세계 농업·농촌 선진 사례 한자리에, 나라별 특색있는 제품·기술 선보여

오는 10월12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일원에서 개막하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서 13개 국가가 참여해 나라별로 특색있는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글로벌홍보관이 운영된다.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글로벌홍보관은 2050 탄소중립이 세계적 논제가 되면서 저탄소 농업구조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 등 선진 해외 사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미국, 이스라엘,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등 13개 국가가 참가한다.

대한민국관에선 비료 사용 절감 저탄소 농법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한 축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누리집(www.ia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시스(2023.9.21.)기사내용 인용

□ 美 농무부 "북한 올해 쌀 생산량 210만t 추정...작년 수준"

북한이 올해 식량 증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쌀 생산량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3~2024 양곡연도 북한 계절 곡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210만t으로 추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농무부는 이런 수치는 작년 북한의 쌀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무부는 1ha(헥타르)당 쌀 생산량은 4.18t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치(4.62t)보다 12% 가까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쌀농사 면적은 지난 5년 평균치보다 약 3% 증가했고, 6~7월 작물 재배 지역 날씨도 농작물에 유리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옥수수 수확량도 230만t 규모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했다.

※ 연합뉴스(2023.8.31.)기사내용 인용

5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 최근 4년간 무기질비료 공급 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7월	2023년 7월
생 산 량	2,142	2,397	2,039	1,396	1,136
출 하 량	2,054	2,429	1,860	1,360	1,160

※ 협회 회원사 기준(수출 포함)

□ 최근 4년간 무기질비료 원자재 톤당 수입 가격 및 환율

(단위 : \$, 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암모니아	273	270	437	672	957	936	580
D A P	314	349	485	749	948	859	638
염화칼륨	312	274	271	363	633	965	533
환 율 (매매기준율)	1,207	1,154	1,117	1,171	1,232	1,351	1,295

※ 관세청 무역통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6 무기질비료 상식

□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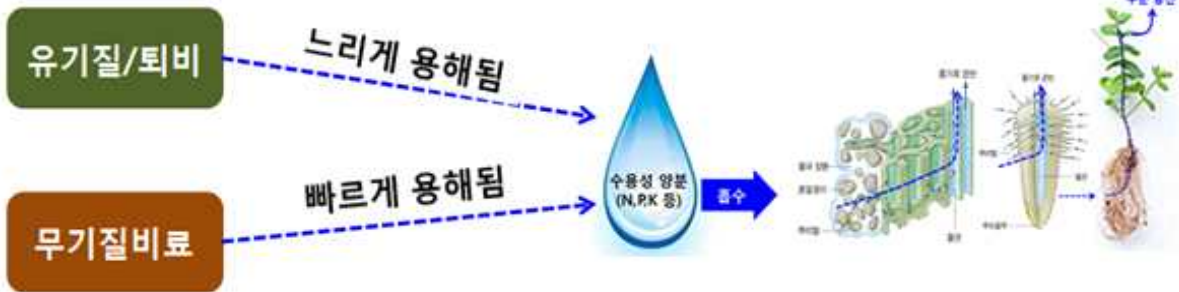
무기질비료는 공기나 천연광물인 무기물을 가공하여 질소, 인, 칼륨 등의 무기물을 생성해서 만든 비료이고, 유기질비료는 식물이나 동물의 유체를 부숙시켜 만든 비료입니다.

무기질비료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 식물의 양분을 직접 공급하여 생육을 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유기질비료는 유기물질 분해과정을 통해 토양 미생물의 활성화,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기질비료나 유기질비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식물에 흡수되는 형태는 무기 물질로 동일합니다.

● 식물이 느끼는 친환경비료(유기질/퇴비)와 무기질비료의 차이는?

식물은 유기질에서 오든 무기질에서 오든 물에 용해된 양분을 흡수하므로 식물의 관점에서 양분은 모두 같은 양분임(사람의 관점에서 구분한 것임)

- 그래서 식물의 입장에서 유기질비료와 무기질비료의 차이는 물에 녹는 시간의 차이밖에 없음



※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발표자료(2013.3.,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현해남 교수)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 소개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래칭(보리, 밀, 옥수수, 조사료)
- 성분량 : 22-16-5+1+0.1+CAS
- 특성 및 효과
 - 보리, 밀 등 사료작물을 위해 특별 설계
 - 인산, 칼슘유황으로 냉해방지 및 수량증대에 효과
 - 고성분 비료로 시비노동력 절감가능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 (주)조비



- 제품명 : 단한번OK(원예)
- 성분량 : 13-7-8+1+0.1+미량요소+NS (완효성)
- 특성 및 효과
 - 비효가 3~4개월 지속되며, 작기가 긴 모든 작물에 효과적인 완효성비료
 - 부식질, 부식산, 유기물이 최적의 비율로 조합되어 있는 NS가 함유
 - 염류 집적이 심한 시설재배지 또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의 염류를 분해하고, 연작장애 해결에 도움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 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지 않아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벽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큰 효과

□ (주)팜한농



- 제품명 : 광분해 한번에아리커
- 성분량 : [21]-10-[11]+1+0.1 (질산태 질소, 황산칼리 함유) (질소·칼리 코팅 원예전용 완효성 비료)
- 특성 및 효과
 - 질산태 함유로 초기 생육이 우수하여 작물을 튼튼하게 해주고 늦은 정식에도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음
 - 멀칭재배시 추비 시비의 불편함을 덜어줌
 - 황산칼리, 고토, 유황, 칼슘을 함유해 작물 품질 향상에 도움

□ (주)풍농



- 제품명 : 설파원예
- 성분량 : 11-7-(9), 고토1, 붕소0.2, 유황18,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원예·과수작물 재배시 필요한 필수 3요소 및 고토, 붕소 및 다량의 유황, 미량요소가 함유된 밑거름비료
 - 마늘, 양파, 생강의 황함유 아미노산함량 증가로 품질 개선과 저장성 향상
 - 감자, 고구마의 전분함량을 높이며, 엽채류와 유지작물의 수량 증대효과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망심골드
- 성분량 : 12-8-[9]+2+0.2(TPA, 유황, 미량, 칼슘 함유)
- 특성 및 효과
 - 유황, TPA 함유로 모든 작물에 사용 가능한 비료
 - 황산칼륨 함유로 당도 증가 및 내병성 향상
 - 기능성 물질 함유로 뿌리 발육 촉진

□ (주)세기



- 제품명 : 원샷특호
- 성분량 : 13-8-(10)+2+0.2(황산가리 사용)
- 특성 및 효과
 - 고토, 붕소, 유황, 석회, 규산 등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좋음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맛, 때깔, 저장성을 높여 주어 과실의 신선도를 높여줌

□ KG케미칼(주)



- 제품명 : 미생물발비료
- 성분량 : 12-5-(7)+3+0.3
- 특성 및 효과
 - 기능성 미생물 함유로 염류피해 및 병해충 경감에 도움
 - 부식산 함유로 토양개량효과 증대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작물의 품질(당도, 향) 향상

※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비료와 식량

-2023년 9월호-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2, 0 FAX : 02-552-2814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 KG케미칼(주)